

‘화려한 봄꽃 향연’ 관광객 북적

법인 체납 강력 징수 착수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운종리 일원, 작약·꽃양귀비 만개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과 운암면 운종리 일대가 5월을 맞아 화려한 작약과 붉은 꽃양귀비로 뒤덮이며 아름다운 장관을 선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5월 봄의 절정을 알리는 꽃들이 만개하면서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은 전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고 있다.

세계절 경관 꽃들이 조성된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은 3월 개장 이후 유료 관광객만 15만5000여 명이 다녀갔고, 주말에는 평균 7000~8000여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역대급 인기를 끌고 있다.

예년 같으면 가을에 국화꽃과 구절초가 필 무렵에 평균 8000여명 인파의 관광객이 찾아지만, 올해는 봄부터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을 타고 수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지난 주말에는 1만 5000여명이 찾는 등 최고의 관광명소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실제 지난 4일에는 황금연휴를 맞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 이후 단일 기준 최고인 9200여명이 찾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붕어섬 생태공원에 식재된 24,000본(6,000㎡), 운종리 작약밭에 조성된 30,000본(7,200㎡)의 작약은 5월 초순 한두 송이씩 피어나기 시작해 현재 만개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화려함은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과 운암면 운종리 일대가 5월을 맞아 화려한 작약과 붉은 꽃양귀비로 뒤덮이며 아름다운 장관을 선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섬진강 다목적댐으로 조성된 인공호수인 옥정호를 배경으로 한 작약밭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절경으로 손꼽히며, 촬영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작약에 이어 붉게 피어난 꽃양귀비도 봄의 붕어섬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붕어섬 생태공원과 요산공원 일대 12,000㎡ 규모의 꽃양귀비밭은 바람에 흔들리며 붉은 물결이 출렁이는 듯한 풍경을 연출, 태양 아래 더욱 선명하고 강렬한 색깔을 뽐내며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에 꽃양귀비가 조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더 많은 방문객의 사람이 기대된다.

붕어섬 생태공원은 사계절 내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번 봄에는 작약과 꽃양귀비뿐 아니라 알리움, 마가렛, 델피늄, 이소토마 등 다양한 초화류가 화단과 화분 곳곳에 식재되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봄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붕어섬 생태공원의 호수를 에워싸고 일목일록 화려하게 피어난 작약꽃과 붉은 꽃양귀비가 많은 관광객을 매료시키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이 꽃들이 만개로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족과 연인, 지인, 이웃들과 오셔서 아름다운 호수인 옥정호를 둘러싼 봄꽃들의 향연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충영 기자

남원시의회, ‘남원의정’ 제51호 발간 편집위원회 회의

소식지 편집 방향·구성 논의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최근 의정 소식지인 ‘남원의정’ 제51호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소식지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편집위원인 손중열 위원, 이미선 위원, 오창숙 위원이 참석해, ‘남원의정’의 편집 방향과 내용 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호에는 시민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의원별 영상으로 제작해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더 깊숙이 다가갈 계획이다.

또한, 남원시의회는 기존의 의정 소



식지를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 2회 발행하던 방식에서, 시민과 소통의 통로를 넓히고 생생한 의정활동을 전달하고자 올해부터 연 3회 발행으로 확대 발간을 추진하게 되었다.

의회 관계자는 “의회는 소식지 발간

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들과 마음을 나누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며, 의정활동뿐 아니라 시민 일상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법인 체납 강력 징수 착수

순창군, 159개 법인 체납액 2억4100만원

순창군이 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을 대상으로 고강도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대상은 체납액 2억4,100만원에 달하는 159개 법인이다.

군은 체납 법인의 신용정보와 재산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체납 처분 가능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부동산·차량·예금 등에 대한 압류 절차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도 병행해 체납세 회수에 전방위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파산 등 징수 불능 상태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절차를 일시 보류하고, 상황 변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의 자립 재정 기반”이라며 “학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선정

남원시는 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평의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올해 사업비로 국비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문학을 가까이 접하고 공공도서관 등에서 인문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매력을 발굴·확산하며, 인문 가치 확산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서관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6

월 초부터 프로그램에 성인 20명을 모집해 6월 17일~9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2회 운영할 예정이며, 신청은 도서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이번 강좌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 증진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문명사로 보는 아시아 문화인류학 주제로 강연 및 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4년 연속 선정은 지역 시민들의 관심 속에 만들어 온 인문학 기반의 성과”라며,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자연과 함께하는 ‘임실 힐링 가족 캠핑’ 소중한 추억 쌓아

임실군이 지난 17과 18일, 1박 2일 동안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에서 ‘임실 힐링 가족 캠핑’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임실 힐링 가족 캠핑은 임실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S/W) 영역의 일환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가족 단위 활동 및 캠핑 체험을 통해 정서적 힐링, 가족 간 유대감 증진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소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사는 1박 2일로 진행됐으며, 가족 단위로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여 가족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참여 가족은 오징어게임(딱지치기, 달고나 게임 등), 보물찾기, 사람의 편지 쓰기 등의 가족 협력 팀빌딩 활동과 반려사를 합캠파(화분)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및 성수산 왕의숲 숲 해설사와 함께 한 숲 탐방 프로그램 등 자연 속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쌓게 됐다. /임실=진충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교통정보 어플리케이션 출시

남원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와 공영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이번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교통 정보로,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위치에 맞는 버스 노선과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주변의 공영주차장 상태와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우선 평소 이용객이 많은 주요 승강장 70곳을 선정해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버스정보안내기(BIT)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설치용 QR코드를 삽입해 시민들이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시정 소식지에도 어플리케이션 설치용 QR코드를 삽입해 시민들이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복숭아순나방 정밀 예찰 강화

임실군이 불철 평균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복숭아순나방 정밀 예찰 강화와 적기 방제를 위한 현장 컨설팅 활동을 추진한다.

복숭아순나방은 노숙유충으로 거친 나무껍질 틈이나 과수원에 버려진 봉지 등에 고치를 짓고 월동하여 연간 4~5회 발생하여 피해를 준다.

성충은 과수의 싹초와 잎 뒷면에 산란하고 부화한 유충은 새순과 과실 속 조직을 갉아 먹으며 성장해 과실 부패 및 낙과 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어린 유충의 싹초를 가해할 경우, 수형관리 및 수세 유지에 장애를 주어 과실 생산에 큰 타격이 되므로 자가 예찰과 적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병해충 관찰포 6곳을 지정하여 폐도몬트랩 설치, 유효적산온도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숭아순나방 발생 밀도 및 방제 적기를 예측하여 과수 농가에 지도·홍보를 전개 중이다.

/임실=진충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